

제 3차 포스트 부산 임시그룹(PBIG) 회의

I. 회의개요

제 3차 포스트 부산 임시그룹(Post Busan Interim Group) 회의가 2012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되었다.

II. 주요내용

- 부산총회 결과문서에서 6월까지 합의키로 한 글로벌 파트너십 세부 운영방안 및 글로벌 모니터링 체제에 대해 마지막 협의를 이루어짐.
 - 금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 제안서는 6.28-29 원조효과작업반에 상정, 승인키로 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협의
- (글로벌 파트너십 거버넌스) 글로벌 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할 집행위원회의 규모는 총 18명으로 제안키로 함.
 - 집행위원회에 참여하는 개발주체는 기존에 합의된 안을 유지하되, 공여국과 수원국 대 표는 각각 2명을 추가(공여국 4, 수원국 6)
 - 공동의장은 장관급으로, 여타 집행위원회 멤버는 고위급으로 구성
 - 6.10일까지 공동의장 및 여타 집행위원회 후보자 선정 추진
- (글로벌 모니터링 체제) 지난 제2차 PBIG회의에서 합의한 7개 분야를 모니터링할 10개 지표에 대해 합의함.
 - 합의된 지표들의 세부 정의, 측정방법, 목표치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6월 원조효과작업반 이전에 회람
- (남남협력국의 글로벌 모니터링 참여방안) 한국 제안으로 부산 파트너십 정신을 살린 남남 협력국의 자발적인 글로벌 모니터링 참여 원칙과 진화하는 프로세스를 강조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됨.

III. 관찰 및 평가/건의

- 우리나라를 비롯 DAC 국가들의 주장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원회에 배정된 공여국 자리가 2에서 4개(공동 의장 포함)로 증가하였으나, DAC내 북구, EU, 미국, CANZ 국가

등에서 참여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새롭게 출범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에 부산총회 주최국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DAC 회원국과 DAC 의장에게 적극적 참여 의지를 조기에 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여국들은 6.1일 전화회의를 통해 공여국 대표 선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

- 우리측이 제안한 남남협력국의 글로벌 모니터링 참여 방안 문안이 주요 신흥국들의 지지를 얻어 포함됨으로써 남남협력국의 부산 파트너십 참여 검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금번 회의에서 인도, 브라질 등은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중국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특히, 중국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중국과 양자 접촉 등을 통해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6월 새롭게 출범하는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및 모니터링에 대비해 우리 ODA 체제를 새로운 개발 규범에 부합하도록 내재화하는 범정부적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